

그분을 그리며

난초와 매화의 기품, 가람 이병기 선생

최승범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가람 이병기 선생 제자

스승을 기리며

가람 이병기 스승께서 서거하신 지 올해로 45년이다. 생전보다도 유택에 드신 후, 스승에 대한 생각과 그리움이 문득문득 간절할 때가 많다. 그때마다 전에는 미처 느끼지 못하였던 스승의 모습이 새롭게 떠오르기도 한다. 높은 스승의 가르침을 입은 제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일 터이다. 그래, 공자의 제자 안연(顔淵)은 스승을 우러러 탄식이었던 것인가.

스승은 우러러 볼수록 더욱 높아지시고, 깊이 천착하면 천착할수록 더욱 굳어지시며, 바라보면 앞에 계시다가 홀연 뒤에 계신다. 스승께서는 진실되이 사람을 잘 권유하시어 나를 학문으로 넓히시고, 나를 예절로 단속하신다. 학문을 그만두려고 하나 그만둘 수 없고, 이미 내 재능을 다하여 보았으나 우뚝 서 있는 듯하여, 비록 따르려고 하나 말미암을 수 없을 뿐이다. 《논어》, 자한 편(子罕 篇)

스승 가람을 처음 빈 것은 1951년의 가을, 6·25 전쟁 중이었다. 국립 전북대학교가 문을 열게 되면서 스승은 문리과대학의 초대 학장을 맡으셨다. 나는 국문과 학생으로서 스승의 가르침을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서 입게 되었다.

스승은 1956년 정년으로 하여 학장과 교수직을 떠나시게 되었다. 그러나 대학원 강의는 계속 맡아 주셨다. 그 당시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서 스승께 배운 과목은 국문학사, 국문학 개론, 시조 개설과 창작론, 국문학 10강, 한국의 극가(劇歌), 한국의 서지(書誌) 등이었다.

6·25 전쟁이라는 엄청난 비극의 와중에서도 나는 매일과 같이 스승을 뵈고, 스승의 강의를 듣는 일이 행복하기만 했다. 서울대학교에 계시던 스승님이 6·25 때 낙향하신 덕분에 지방대 학생이었던 내가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정년 후 한때 스승께서는 다시 서울로 이거하셨다. 그러나 1957년 뇌일혈로 다음 해에 다시 귀향, 10년간을 향리의 ‘수우재(守愚齋)’에서 요양하시다가 1968년 향년 78세로 작고하셨다. 그러니까 스승을 가까이에서 모신 건 열여덟 해에 지나지 않았다.

이제 스승께서는 향리의 뒷산인 용화산(龍華山)의 한 자락, 만년 유택에 계신다. ‘전라북도문화인장’으로 스승을 모실 때의 첫 마음과는 달리 자주 찾아뵈지도 못하고 있다. 상여를 뒤따르던 저 날, 사모(師母)께서 하신 말씀이 다시금 떠오른다.

“이제 최 군도 만나기 어렵겠네.”

“사모님, 자주 찾아뵈겠습니다.”

“어찌 쉽겠어.”

오늘에도 이 말씀 생각이면 자괴스럽기 그지없다. 그러나 내 마음 속 스승을 잊은 적은 없다.

2001년 6월은 ‘가람 이병기 선생의 달’이었다.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스승을 ‘문화 인물’로 선정·공포하였기 때문이다. 마침 가람 스승의 탄생 110주년, 서거 33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였다. 전주에서도 스승을 기리는 행사를 가졌다. 나는 스승의 생전 모습을 우러르며, 백세지사(百世之師)¹⁾를 되뇌었다. 이 말은 《맹자》의 진심하편(盡心下篇)에 있는 말이다. 맹자는 백이(伯夷)·유하혜(柳下惠)를 두고 한 이야기였다. 그러나 나는 나의 스승 가람께서도 ‘백대의 사표(師表)’가 되고 남으실 어른이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가람을 학자·시인·교수로서, 그리고 어버이의 정으로 나를 대해 주셨던 어른으로만 기리고 있었다. 그러나 스승께서 돌아가신 33주년에야 이 몇 가지 면에서만 이야기할 어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래, ‘백세지사’를 떠올렸다.

이제 스승의 45주기의 해를 맞이하여 다시금 스승을 기리게 된다. 이번엔 어찌된 일인가. 스승을 기리는 글을 쓰려 해도 쉽게 글줄이 이어지지 않는다. 오직 스승의 시조 한 편이 앞을 가릴 뿐이다.

빼어난 가는 님새 굵은 듯 보드롭고
자짓빛 굵은 대공 하얀한 꽃이 벌고
이슬은 구슬이 되어 마디마디 달렸다
본대 그 마음은 깨끗함을 즐겨 하여

1) 후세(後世)까지 오래도록 모든 사람의 스승으로 숭앙(崇仰)되는 덕과 학문(學問)이 높은 사람

정한 모래 틈에 뿌리를 서려 두고

미진(微塵)도 가까히 않고 우로(雨露) 받아 사느니라

〈난초 4〉

《가람시조집》(1939)에 수록된 〈난초〉 시는 네 편에 불과하다. 8·15 광복 후의 후기 시에도 네 편이 전하거니와 스승의 한생 삶은 난초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난(蘭)을 기른 지 20여 년 20여 종으로 30여 분(盆)까지 두었다. 동네 사람들은 나의 집을 화초집이라고도 하고, 난초 병원이라고도 하였다. 화초 가운데 난이 가장 기르기 어렵다. 난을 달라는 이는 많으나 잘 기르는 이는 드물다. 난을 나누어 가면 죽이지 않으면 병을 내는 것이다. 난은 모래와 물로 산다. 거름을 잘못하면 죽든지 병이 나든지 한다. 그리고 별도 아침저녁 외에는 아니 짚어야 한다. 적어도 10년 이상 길러 보고야 그 미립이 난다 하는 것, 첫째 물 줄 줄을 알고, 둘째 거름 줄 줄을 알고, 셋째 위치를 막아 줄 줄을 알아야 한다. 조금만 촉랭(觸冷)해도 감기가 들고 뿌리가 얼면 바로 죽는다. 이전 서울 계동(桂洞) 홍술햇골에서 살 때 일이었다. 휘문중학교의 교편을 잡고 독서(讀書), 작시(作詩)도 하고, 고서(古書)도 사들이고, 그 틈으로써 난을 길렀던 것이다. 한가롭고 자유로운 맛은 몹시 바쁜 가운데에서 깨닫는 것이다. 원고를 쓰다가 밤을 새우기도 왕왕 하였다. 그러하면 그러할수록 난의 위안이 더 필요하였다. 그 푸른 잎을 보고 방렬(芳烈)한 향을 맡을 순간엔, 문득 환희의 별유세계(別有世界)에 들어 무아무상(無我無想)의 경지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조선어학회 사건에 피검되어 홍원·함흥서 2년 만에 돌아

와 보니 난은 반수 이상이 죽었다. 그해 여산(礪山)으로 돌아와서 십여 분을 간신히 살렸다. 갑자기 8·15 광복이 되자 나는 서울로 또 가 있었다. 한 겨울 지내고 와 보니 난은 모두 죽었고 겨우 뿌리만성한 것이 두어 개 있었다. 그걸 서울로 가지고 가 또 살려 잎이 돌아나게 하였다. 건란(建蘭)과 춘란(春蘭)이다. 춘란은 중국 춘란이 진기한 것이다. 꽃이나 보려 하던 것이, 또 6·25 전쟁으로 피난하였다가 그 다음 해 여름에 가 보니, 장독대 옆 풀섶 속에 그 고해(枯骸)만 엉성하게 남아 있었다.

그 후 전주로 와 양사재(養士齋)에 있으며, 소공(素空)이 건란 한 분을 주었고, 고경선(高慶善) 군이 제주서 풍란 한 등걸을 가지고 왔다. 풍란(風蘭)에는 웅란(雄蘭)·자란(雌蘭) 두 가지가 있는데, 자란은 이왕 안서(岸曙) 집에서 보던 것으로서 잎이 넓적하고, 웅란은 잎이 좁고 빼어났다. 물을 자주 주고, 겨울에는 특히 옹호(擁護)하여, 자란은 네 잎이 돋고 웅란은 다복 다복하게 길었다. 벌써 네 해가 되었다.

십여 일 전 나는 바닷게를 먹고 중독되어 광란(癡亂)이 났다. 5, 6일 동안 미음만 마시고 인삼 몇 뿌리를 달여 먹고 나왔으며, 그래도 병석에 누워 더 조리하였다. 책도 보고, 시도 생각해 보았다. 풍란은 곁에 두었다. 하이얀 꽃이 몇 송이 벌었다. 방렬·청상(清爽)한 향(香)이 움직이고 있다. 나는 밤에도 자다가 깬다. 그 향을 맡으며, 이렇게 생각을 하며, 등불을 켜고 노트에 적었다.

잎이 뺏뺏하고도 오히려 영롱(玲瓏)하다.

썩은 향나무 껍질에 옥(玉) 같은 뿌리를 서려 두고,

청량(淸涼)한 물기를 머금고 바람으로 사노니.

꽃은 하이하고도 여린 자연(紫烟) 빛이다.
높고 조출한 그 품(品)이며 그 향(香)을,
숲 속에 숨겨 있어도 아는 이는 아노니.

완당(阮堂)선생이 한묵연(翰墨緣)이 있다듯이 나는 난연(蘭緣)이 있고 난복(蘭福)이 있다. 당귀자, 계수나무도 있으나, 이 웅란에는 백중할 수 없다. 이 웅란 진귀하다.

‘간죽향수문주인(看竹向須問主人)’이라 하는 시구가 있다. 그도 그럴 듯하다. 나는 어느 집에 가 그 난을 보면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겠다. 고서(古書)도 없고, 난(蘭)도 없이 되잖은 서화(書畫)나 붙여 놓은 방은 비록 화려 광활하다더라도 그건 한 요리집에 불과하다.

두실와옥(斗室蝸屋)이라도 고서 몇 권, 난 두어 분, 그리고 그 사이 술이나 한 병을 두었다면 삼공(三公)을 바꾸지 않을 것 아닌가.

뺨은 육체나 기를 따름이지만 난은 정신을 기르지 않는다.

스승의 말씀을 바로 옆에서 다시 듣는 느낌이다. 이 수필 <풍란>(1954)은 가람 스승이 붓으로 쓰셨다. 내가 원고지에 옮겼던 저 때의 기록도 새롭다. 스승께서도 스스로 ‘난연·난복’을 말씀하셨지만 실로 난초와 스승을 따로 떼어 생각할 바 아니라는 생각이다. 뭐 새삼스러운 이야기일지 모른다. 그동안에도 가람을 ‘난초의 시인’이라 일러왔지 않느냐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을 시론가들이 흔히 소월(素月)을 ‘진달래꽃의 시인’, 영랑(永郎)을 ‘모란의 시인’, 석정(夕汀)을 ‘태산목의 시인’, 도연명(陶淵明)을 ‘국화의 시인’, 이태백(李太白)을 ‘달의 시인’이라 하듯, 가람을 ‘난초의 시인’이라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말하자면 시인들의 한 대

표작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된 작품으로 하여서 그 시인을 일컫는 것과는 다르다.

여기서 나의 스승을 ‘난초의 시인’으로 새롭게 느꼈다는 것은 비단 스승의 대표작이나 스승의 애란(愛蘭)을 두고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스승의 한생을 우러러볼 때, ‘가람은 난이요, 난은 곧 가람이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일찍이 일석 이희승(李熙昇)은 “시조 하면 가람을 연상하게 되고, 가람 하면 시조가 앞서게 된다”라고 하였고, 노산 이은상(李殷相)은 가람을 십장생 중 물로 비유하여 ‘수송(水頌)’을 노래하기도 하였다.

샘 솟아 흐르는 물 여흠여흠 노래하고
괴어서 호수 되면 달과 별이 잠겨 놓고
한 바다 이루고 나면 호호탕탕(浩浩蕩蕩)하니라

이 밖에도 당대 스승의 친지·후학들은 흔히 가람을 낙천가, 애주가, 장서가, 해학가, 고전의 수집가·주석가·양화가 등으로 일컬어 받들기도 하였다.

스승께서는 곧잘 ‘세 가지 복’을 타고났다는 말씀을 하셨다. 난초복·술복·제자복이 그것이다. 스승의 어느 한 단면만을 들어 말하자면, 위에 열거한 어느 면에서나 독보적인 경지를 열어 가꾸고 다 같이 일가를 이루셨던 스승이다. 그러나 그 어느 면인들 스승의 뒤꿈치에도 미치지 못한 제자로서 이 자리에서 긴 소리를 뇌까릴 수 있겠는가. 가람 스승께서 이루어 놓으신 바는 ‘양지미고(仰之彌高)요, ‘찬지미견(鑽之彌堅)’일 뿐이다.

일찍이 시인 김수영(金洙暎)이 가람을 뵈고 그의 일기에 술회한 몇

구절을 옮겨 이 자리 스승을 우러른 내 마음의 일단을 대신하고자 한다.

예술의 힘으로 커진 사람은 인간으로도 큰 사람이 된다는 표본 같은
이가 가람 선생이라고 생각한다.

가람 선생의 수집력(문학적)에 새삼스러이 감탄한다. 역시 여러 가
지를 보아야 한다. ①설화(說話: 민족) ②외담(猥談). 가람은 ‘대우
(大愚)’를 아는 사람이다. ‘겸손’—그것도 고도의 겸손을 가지고 그리
고 ‘청춘’과 ‘인생’을 가지고 있다. 과연 가람 선생이라고 경탄하였다.

《시여 침을 뱉어라》(민음사, 1975)

앞에서 스승 가람을 ‘난초의 시인’으로서보다도 바로 ‘가람은 난이
요, 난은 곧 가람’으로 우러르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 이 말에 대한 이야
기에 앞서 다시 스승의 난초 시 몇 편을 옮겨 본다. 이는 8·15 후의 작
에 속한다. 전항에서 인용한 〈난초 4〉는 일제강점기 하의 작품이다.

난을 난을 캐어다 심어도 두고
좀먹은 고서를 한 옆에 쌓아도 두고
만발(滿發)한 야매(野梅)와 함께 팔구년(八九年)을 맞았다

다만 빵으로 사는 이도 있고
영예 또는 신앙으로 사는 이도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을 이러하게 살고 있다

〈난(蘭)과 매(梅)〉

잎이 뽀뽀하고도 오히려 영롱하다
 썩은 향나무 껍질에 옥 같은 뿌리를 서려 두고
 청량한 물기를 머금고 바람으로 사노니
 꽃은 하이하고도 여린 자연(紫煙) 빛이다
 높고 조출한 그 품(品)이며 그 향(香)을
 숲 속에 숨겨 있어도 아는 이는 아노니

〈풍란(風蘭)〉

〈난과 매〉에서 ‘팔구년을 맞았다’의 ‘팔구년’은 단기 4289년을 말함이다. 그러니까 이 시조시는 1956년의 새아침에 창작하신 것이 된다. 스승께서는 이해에 전북대학교에서 정년 퇴임을 하셨다. ‘뽕’, ‘영예’, ‘신앙’보다도, 앞날에도 이제까지와 같이 ‘난초’, ‘고서’, ‘아매’와 더불어 세상살이를 하고 싶다는, 스승의 심경과 한 다짐 같은 것도 엿볼 수 있다. ‘난초’는 심지(心地)를, ‘고서’는 학문을, ‘아매’는 정년 퇴임을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다.

〈풍란〉은 〈난과 매〉에 한 해 앞서 창작하신 것이다. 스승의 ‘심지’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청량한 물기를 머금고 바람으로 사노니’, ‘숲속에 숨겨 있어도 아는 이는 아노니’가 곧 그것이다. 이러한 스승의 심지는 일제 때의 〈난초 4〉와 다를 바 없다. 몇몇 시행의 비교만으로도 바로 알 수 있다.

빼어난 가는 뉘새 굵은 듯 보드롭고 〈난초 4〉
 잎이 뽀뽀하고도 오히려 영롱하다 〈풍란〉

자짓빛 굵은 대공 하얀한 꽃이 벌고 <난초 4>
꽃은 하이하고도 여린 자연 빛이다 <풍란>
이슬은 구슬이 되어 마디마디 달렸다 <난초 4>
청량한 물기를 머금고 바람으로 사노니 <풍란>

본대 그 마음은 깨끗함을 즐겨 하여 <난초 4>
높고 조출한 그 품이며 그 향을 <풍란>

정한 모래 틈에 뿌리를 서려 두고 <난초 4>
씩은 향나무껍질에 옥 같은 뿌리를 서려 두고 <풍란>

미진도 가까히 앓고 우로 받아 사느니라 <난초 4>
숲 속에 숨겨 있어도 아는 이는 아노니 <풍란>

다만 다른 것은 창작 연대와 시대적 배경일 뿐 스승의 삶의 심지에
는 다른 바가 없다. 스승께서 쓰신 <도림란(道林蘭)>에는 “난의 만여
종이 온 대륙에 펼쳐 있다” 같은 시행도 있다. 풍란도 난초의 일종이다.
난초에는 난초로서의 성결이 있고 난초로서의 기품이 있다. 스승께서
는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도 난초의 성격과 기품을 사고자 하였다.
아니 하나가 되고자 하셨다.

스승께서는 애송시로 송나라 사방득(謝枋得)의 칠언절구인,

십년무몽득환가(十年無夢得還家)
독립청봉야수애(獨立靑峰野水涯)
천지적료산우혈(天地寂寥山雨歇)

기생수득도매화(幾生修得到梅花)

를 들어 말하신 바 있다. 특히 결구는 일독삼탄(一讀三嘆)의 구라고 하셨다. 결구에는 ‘사람이 몇 생이나 닦아야 매화에 이를 수 있겠는가’의 뜻이 담겨 있다.

스승께서는 또한 “난초는 정신을 기른다”라고 말씀하셨다. 수필 <해방전후기>에서 스승은 다음과 같이 술회하셨다.

나는 중학 교사가 되어 20여 년을 보내는 동안 나의 뜻하던 바 고서적 몇천 권을 모았다. 내가 처음 18원(圓) 월급을 받았으나 그 돈의 반 이상은 책을 샀었다. 처자와 함께 호구하기에도 부족한 그 월급을 가지고 하고픈 대로 될 수 있었던가. 자식에겐 맛있는 과일 한 개를 못 사다 주고 아내에겐 반반한 치마 한 벌도 못해 입혔다. 그래도 좁먹고 썩은 책은 나의 방으로 모여든다. 그리고 매화·난초 몇 분만은 나의 책상 한 머리에 사철 놓여 있었다.

이는 ‘해방 전’에 대한 술회이거나와 ‘해방 후’의 술회에는 다음 구절도 있다.

해방 후 무슨 회(會)니 무슨 정당(政黨)이니 하는 것이 전보다도 몇 곱절 더 생겨 나더러 거기 가입해 달라고 무척 조르기도 하였으나 하나도 가입하여 다닌 일이 없다가보다도 과연 다닐 틈이 없다. 나의 좋아하는 독서·등산·난초도 뜻대로 못한다.

이는 ‘문학가 동맹’의 일로 한때 오해를 받자 술회하신 것이다. 이

수필의 끝마무리는 다음과 같다.

거의 60성상에 이르러 내 깐으로는 꺾이어 볼때로는 꺾이어 보았다.
그 파란이 많던 시대에 구사일생으로 남아 있는 것 아닌가. 사교(社交)도 사교요 명예지만 나는 다만 국학(國學)으로서 우리 독립 국가를 도와 희생하고자 한다. 또 어학회 사건과 같은 정신의 일이라면 나는 영어(囹圄)에 썩드라도 기뻐 참가하겠다.

스승께서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1942년 10월 22일부터 다음 해 9월 18일까지 홍원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셨다. 스승께서는 일제 강점기의 ‘창씨개명(創氏改名)’에도 불응, ‘이병기(李秉岐)’로 일관하셨다. 이 어두운 시대 스승께서는 “난초로 위안이 필요했다”의 완곡한 표현을 하신 바 있다. 그러나 ‘위안’이라기보다도 난초로 반신(反身)과 오도(悟道)의 나날을 닦으신 것이다. 감히 오늘 이 자리에서 스승을 기리며 ‘가람은 난이요, 난이 곧 가람, 매화도 곧 가람’이라 한 것도 여기에 생각이 미쳤기 때문이다.

스승의 〈난초〉 한 수를 잠시 읊조려 본다. 두 수 연작(連作)인 〈난초 3〉의 끝 수가 된다.

나도 저를 못 잊거니 저도 나를 따르는지
외로 돌아왔어 책(冊)을 앞에 놓아두고
장장(張張)히 넘길 때마다 향을 또한 일어라

그래, 스승 가람은 난초이셨다. 난초 중에서도 건란(建蘭)의 웅란(雄蘭)이 바로 가람이셨다.

스승의 애주(愛酒), 선학(善讜)도 난이요, 난의 기품이었다. 난초는 담배 연기를 싫어하고, 술 향기는 좋아한다고 한다. 가람께서는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으셨으나 술은 돌아가신 날짜까지도 즐기셨고 해학은 언제나 좌중을 웃음으로 이끄셨다.

스승의 성결·심지도 난이요, 매화의 기품이었다. 난초는 산중에 있어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하여 향기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했다. 세속적인 취향이나 체면 같은 것은 위선이라는 말씀이셨다.

스승의 마음도 난이요, 매화의 기품이었다. 정년 퇴임하신 후에도 스승께서 “나의 연갑보다도 어린아이나 젊은 사람들을 나의 동무로 삼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다. 난초는 사철 푸르다. 티끌을 싫어하고 아침 햇살을 좋아한다.

스승께서는 이 글을 곱어보신다면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어느 해의 봄, 향리인 ‘수우재’에서 요양 중이시던 스승께 스승의 필적을 간직하고자 휘호를 말씀 올린 바 있다. 당시 《동아일보》 김종배(金重培) 기자와 함께한 자리에서였다. “崔勝範 君, 자네 생각나는 대로 하소. 二月二十五日 가람 李秉岐”의 휘호이었다. 스승께서는 평소 초서(草書)를 쓰신 일이 없었다. 평생 쓰신 일기에서도 흘림체의 글씨를 볼 수 없다. 강의실 판서도 해서나 행서였다.

문득, 조선 말기의 실학자 혜강 최한기(惠岡 崔漢綺) 선생의 말씀이 떠오른다. “남을 가르치는 으뜸은 기화(氣化)에 있다”라는 말씀이다. 이제 다시 생각하면, 스승 가람의 가르침도 ‘기화’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사실 스승의 동정(動靜)·행지(行止)의 하나하나가 가르침이 아닌 것이 없었다. ‘백세지사(百世之師)’로 우러르고 싶은 어른이시다.